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개원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초대 원장겸 경일대학교 총장 이 무 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하여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 출연하고, 두 부처 산하에 있던 직업교육훈련연구소들이 모체가 되어 동년 9월 10일 설립되고 10월 18일 개원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본 기능은 국가가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평가하며, 국민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 및 자료를 수집·관리·보급하고, 학력사회 못지 않게 능력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 기술자격제도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는 자격제도를 구축하며, 모든 국민이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설립준비 기획단장과 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역사는 짧지만,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로 대내적으로는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국민과 산업체, 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정부정책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직업능력개발원 초대원장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3개여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벌써 개원 5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팔목할만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니 감개 무량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대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나라의 평생 학습사회 구현에 절대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개원과 동시에 IMF 경제 위기를 맞아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존폐 위기를 맞아 험난한 과정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 우리 나라가 경제 위기 상화에 처해 있을때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정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원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실업교육100주년을 맞아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대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의미 있게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130여개국

에서 700여명의 정부 각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제2차 유네스코직업기술교육대회를 '99년 4월 26 - 30일까지 개최하여 20세기 전세계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을 종합적으로 조명해보고,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물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180여개 유네스코 회원국과 국제 직업교육훈련 연구기관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역사는 짧지만,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로 대내적으로는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국민과 산업체, 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정부정책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 제2차 직업기술교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2000년에는 UNESCO 직업기술교육훈련 우수지역센터로 지정받기도 하였고, APEC, ILO,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의 직업교육훈련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호주의 NCVER, 독일의 BIBB, 프랑스의 CEREQ, 중국의 CITVE, 유럽연합의 CEDEOP 등과 협력관계(MOU)를 체결하고,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

육훈련 및 자격제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금까지의 역할과 기여에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많이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평생학습사회로의 생활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쌓아 온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8월 26일 제정 공포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기본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위상도 좀 더 높이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주변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강화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앞으로 직업교육훈련은 물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개발 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평생 학습사회의 구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을 높이며,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두뇌 집단이 모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짧은 기간에 이토록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강무섭 원장님을 위시해서 연구원과 모든 직원,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태동하게 힘써주신 분들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직간접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인문사회연구회,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그 외 관련 부처와 단체, 학회, 전문인, 직업교육훈련 관계인, 그리고 국제직업교육훈련기구의 관계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개원 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울러 이자리가 직업교육훈련의 새로운 역사 창조를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